

# 봄은 고양이

유용빈

2016-08-05

## 차 례

차 례 . . . . .	1
1 여름 . . . . .	2
2 가을 . . . . .	3

3 겨울 . . . . .	5
4 봄 . . . . .	6

## 1 여름

어머니가 평소 집 근처에서 밥을 챙겨주는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마리가 특히 유난했다. 길고양이 주제에 어머니가 문화센터 다녀오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아양을 떨던 당돌한 아이었는데 한동안 임신을 했는지 배가 불룩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배가 훌쭉해져서 어머니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장마비가 억수같이 오던 어느날 어머니는 부엌앞 화단에서 유난히도 고양이 우는 소리가 크게 크게들려 나가보니 그 아이가 새끼 고양이 두마리를 데리고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심한 비라도 피하게 해줄 요량으로 고양이들을 현관앞으로 데리고 오셨고 비가 잣아들 때까지 물과 사료를 나눠주셨다. 비가 그치고 어머니는 고양이들을 다시 내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미 고양이는 그 현관에서 꼼짝 않고 계속 앙칼진 소리로 울었다. 하는수 없이 어머니는 잠시라도 집에 들일 생각으로 한마리씩 젖은 몸을 닦으며 못쓰는 옷을 넣어둔 바구니에 고양이들을 담았는데, 그제서야 새끼중 한마리가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이 없는걸

발견하시곤 대경실색해서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이미 우리집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식구를 더 늘릴 여력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적어도 다리가 아픈 한명만은 키우기로 마음먹으셨고, 나는 그 아이에게 '장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 2 가을

긴 여름 장마가 끝나고, 다리가 불편한 장마는 우리집 안방 화장실을 독차지했다. 평생 거리를 전전한 장마의 어미 나비는 날이 개고 새끼들이 조금 안정을 되찾자 이내 좁은 안방 화장실을 답답해했고 결국 다시 거리로 나섰다. 장마보다 몸집이 크고 유난히 활달하고 불임성이 좋던 무명이는 어머니가 집에서 키울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양이 인생을 대물림 할수는 없다며 각종 고양이 카페를 수소문 하셨다.

잘려나간 장마의 왼쪽 다리 상처는 처음 집에왔을때 더러운 바닥에 쓸려 무척 안좋았지만 꾸준하게 소독을하면서 점점 아물어갔고, "저런걸 또 어떻게 평생 키우냐"며 한숨쉬시던 어머니의 걱정도 같이 아물어갔다. 상처가 아문 뒤에도 장마는 신경이 예민하고 칭얼거리는 일이 많았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려니 하다가 점점 칭얼거리는게 심해져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지금 잘려나간 팔꿈치 정도의 원발을 어깨까

지 자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상처와 상관없이 계속 통증이 있을꺼라고 말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고양이를 거둘 용기가 있었던 어머니였지만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에 성치 않은 반쪽 다리에 다시 칼을대는 수술을 결정할만한 용기는 없었기에 "좀 더 지켜보자" 며 머뭇거렸고 결국 장마는 2주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길고양이 키우실분"이라는 제목으로 고양이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한참동안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어머니는 입양해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을때 너무 기뻐하셨다.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연락달라는 부탁과 함께 혼수 같은 짐꾸러미를 싸서 무명이를 보냈고. 몇일후 환하게 웃는 여자아이 둘 사이에 있는 만사 귀찮은듯한 표정의 무명이 사진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도착했을때 어머니도 겨우 안심하셨다. 그렇게 무영이에 대한 생각이 흐릿해 질때쯤, 어머니는 무명이 안부를 물었는데 답장이 없다며 연락을 하셨고 나도 불길한 생각은 들었지만, 문자를 제대로 확인못했을꺼라며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몇주뒤, 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났을때 어머니는 문자대신 통화버튼을 누르셨고, 수화기 반대편에서는 갑자기 키울수가 없게되어 무명이를 잃어버렸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당신이 졸지에 멀쩡하게 살고있는 고양

이를 평생 지 어미를 만날수도 없는 외딴 길거리로 내다 버린 사람이 되었다며 우셨다.

### 3 겨울

낙엽도 이제 다 지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추위에 집주변 고양이들 외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머니는 바람을 막아줄 요량으로 집에서 안쓰는 이불조각을 들고 나비가 주로 기거하는 곳을 찾았는데, 나비는 평소보다 몸이 불어서 눈에는 눈꼽이 잔뜩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동내 동물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는 신부전으로 복수에 물이 많이 차 위독한 상태라고 말 했다. 가망이 많지는 않지만 치료를 원하면 치료비도 솔찮게 듣다며 기백만원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장마, 무명이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는데 나비까지 그럴 수 없다며 수소문끝에 목동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는 동물병원에 나비를 입원시켰다. 4일 뒤 퇴근시간 즈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너무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 너가 와서 운전 좀 해라" 병원에서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퇴원을 시켜야 할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가는 내내 어머니는 나비가 자기를 버린거라고 생각하면 어떻하냐며, 병원에 보낸 당신을 자책하셨고 그럴수록 나는 더 급하게 차를

몰았다. 동물병원 은색 철제 케이지 속에 나비는 힘없고 고단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짧게 고개를 들고 꼬리를 움찔거렸다. 어머니는 나비를 꼭 껴안은 채 돌아오는 내내 별 말이 없으셨다. 집에 오니 나비는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어머니 말로는 병원에서 나와 올림픽 대로를 탈때즈음 잡고 있던 나비 손에서 힘이 탁 풀리는게 느껴졌고, 그 뒤로 조금씩 굳어갔지만 운전중인 내가 놀랄까봐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나는 오히려 우리가 도착할때까지 나비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순찰도는 경비아저씨가 오는지 망을 보셨고 나는 집앞 정원, 장마가 이미 잠들어있는 자리 옆에 끓인물을 부어가며 얌 땅을 팠다.

## 4 봄

어머니께서 요즘 단지안 몇군데에 고양이 사료와 물을 갔다놓으시는데, 얼마전부터 밥을 주려 가면 고양이 한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다. 그 고양이는 가져다준 식사를 하고나면 꼭 기분좋게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타기를 보여준다며 대견한듯 자랑을 하셨다.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고 어머니 말씀을 듣는등 마는등 했다.